



# 정교회 주보



성 미론 크레테의 주교

## 마태오 제 7주일

성 에밀리아노스 주교고백자

제 6조, 조과복음 7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제 2응송 주 변모 축일 / 178, B 181

•제 6조 부활 찬양송 / 82, A 216

•주일 입당송 / 14, A 42

•주 변모 축일 찬양송 / 178, B 181

•성당 찬양송

•주 변모 축일 시기송 / 178, B 183

•사도경 : 로마서 15:1~7 / 봉독서 173

•복음경 : 마태오 9:27~35 / 112, B 41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교회의 기혼 성인들

### 성 미론 크레테의 주교

우리 교회에서 8월 8일 축일로 기념하는 미론 성인은 4세기에 그리스의 크레테 섬에서 살았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유명한 사제였습니다.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였고, 부모님이 신앙이 깊은 젊은 여인을 아내로 추천했을 때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성인의 직업은 농부였습니다. 땀을 흘리며 수확한 것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베풀었고, 그럴수록 일은 늘어났습니다. 성인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연민은 너무나 커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이 만족해할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한 번은 도둑들이 밀을 훔치러 왔는데 - 도둑들의 욕심이 너무나 커서 자신들의

자루에 가득 채운 밀을 들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 성인은 그것을 알고도 그들을 벌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루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그들의 몫을 잃지 않도록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인은 자신의 아내가 안식한 후에 성서 공부와 교회 예배 참여와 덕의 실천에 더욱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성인을 주교의 자리에 올리는 것은 정당하고 합당하였습니다. 주님께서도 성인에게 생전은 물론 안식한 후에도 기적들을 행하는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성인은 거의 백세에 안식하였습니다.

# 당신은 당신 영혼의 "밭"을 가꿀 줄 압니까?

사도 바울로는 자신의 제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의 삶이 열매가 없는 삶이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선행에 전념해서 남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생활이 보람 있게 될 것입니다.”*(디도3:14)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교의 믿음은 신자들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덕들의 열매이고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어떤 밭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1. 체계적인 가꿈.** 신자의 영혼의 밭도 비옥하게 해 줄 하나님의 은총의 쟁기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쟁기가 흙을 뚫고 단단한 덩어리를 부수듯이 하나님의 은총이 사람의 내면을 파고들어 거룩하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연스러운 결과로 결실이 맺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말씀의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고 싹이 난 후에는 "백배나 되는 열매"(루가 8:8)를 맺기 때문입니다.

**2. 물주기.** 교회의 신비는 신자들의 마음에 풍성하게 물을 주는 비밀 수도꼭지입니다. 그것은 세례의 물에서 회개의 눈물까지 줍니다. 물론 절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모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주기가 없다면 "우리는 덕의 열매를 맺지 못 할 것입니다."(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왜냐하면 사람의 내면이 말라버려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3. 가지치기.** 나무가 제대로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하

기 위해서 마른 가지들을 가지치기 하듯이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각자는 "하느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에페소6:17)로 신성한 말씀의 인도를 받아,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로마서12:2)를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요한15:2) 욕망의 마른 가지들을 쳐내어 마음을 깨끗하게 합시다.

**4.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게 함.** 식물은 생명을 얻기 위해 가지를 태양을 향해 뻗습니다.

신자는 기도로 그의 생각과 마음을 위로 향하여 정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로 향합니다.

"성령의 열매"(갈라디아5:22)를 키우기 위해 기도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를 거룩하게 하고 은총에 의한 신화(神化)로 인도할 하느님의 "창조되지 않은 활력"에도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인은 "우리 모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족도, 사회도 기도가 없으면 영적으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들의 가는 길은 어두울 것입니다. 달도 없고, 폭풍우 같은 밤일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결실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성한 은총의 쟁기질, 성사의 관개(灌溉), 욕망의 가지치기, 생명을 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밭"(1고린토3:9)으로 "많은 열매"(요한15:5)를 맺게 될 것입니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 에비아의 야고보스 성인(1920-1991) 4

야고보스 성인은 뛰어난 영적 인도자였으며, 그의 조언을 듣고서 수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 되돌아왔습니다. 성인은 자기 자신보다도 영적인 자녀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성인의 성성(聖性)을 정말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교인들이 고백성사를 할 때였습니다. 성인은 결코 어느 누구도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아주 적합하게, ‘다정한 야고보스 원로’라고 알려졌습니다.

성인은 고통스러운 질병을 많이 앓았습니다. 성인이 마지막으로 겪은 질병의 시련은 심장병이었습니다. 성인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제 육체가 고통을 겪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곧, 제가 겸손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인은 언제나 죽음과 다가오는 심판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실제로 성인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미리 알았습니다. 지상에서 마지막 날인 1991년 11월 21일 아침에 성인은 한 보제를 위해 고백성사를 행하면서 그에게 떠나지 말고 수도원에 머물러 있도록 요청하였는데 그것은 자신이 숨을 거둔 뒤 수의를 입히는 일을 해달라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고백성사 도중에 성인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일어서라. 성모님과 다비드 성인, 러시아인 요한 성인, 야고보스 사도가 방안으로 방금 들어 오셨다네.” “수도원장님, 그분들이 이곳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라고 보제가 묻자, 성인



은 “나를 데려가시려고 오셨다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인의 무릎이 구부러지더니 바닥에 엎어지셨습니다. 미리 말씀하신대로 성인은 ‘한 마리 작은 새처럼’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날은 바로 성모님 입당축일이었고, 성인은 바로 하느님의 나라로 자신의 입당을 완성한 것입니다.

성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며,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성인이시여! 당신은 참으로 거룩하십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안식하신 뒤에도 성인은 하느님의 옥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 놀라운 기적을 행해주신 성인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아타나시아

## 대교구

### ■ 성모 안식 축일 준비

지난 8월 1일부터 15일 성모 안식 축일을 준비하는 금식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주중 오후 예배에 성모소기원의식을 드립니다. 각 지역성당 사무실에 연락하여 코로나 19 지침을 지키면서 참여하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모두 금식을 지키면서 영적으로 성모안식 축일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 소티리오스 대주교님 퇴원

소티리오스 대주교께서 위중한 수술을 하신 후 병원에 계시다가 지난 8월 3일(화)에 기쁜 마음으로 퇴원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도움으로 건강이 양호하신 상태입니다. 소티리오스 대주교께서는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느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 ■ 온라인 줌 단체모임

우리는 계속되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온라인 줌을 이용한 비대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듯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영적 양식을 취해야 합니다. 온라인 줌 단체모임을 통해 우리는 영적 양식을 취하고 서로 친교를 나누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공지하는 시간에 따라 각 단체의 회원분들은 꼭 모두 참석하셔서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 주일학교 여름 프로그램 취소

서울과 수도권에 코로나19 4단계 방역조치에 따라 계획했던 주일학교 여름 프로그램을 안타깝게도 취소하였습니다. 하느님의 도움으로 상황이 좋아지면 추후에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많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